

# 불법, 도그마 아니기에 시대 따라 변주

## 권오민 교수 '문사철' 서 주장... 김성철 교수의 '진화론' 비판

“불교는 결코 단일한 체계가 아니다. 부처님 교법은 도그마가 아닌 까닭에 아비달마(부파)불교를 거쳐 대승의 중관·유식·여래장·밀교로, 남방에서는 남방불교로, 티베트에서는 티베트불교로, 북방에서는 천태·화엄·정토·선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꽃피울 수 있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했다”는 류의 진화를 거친 교학의 일미성을 주장하는 학문기조를 ‘구호’와 ‘선전’이 남무하는 것이다. 근대일본 불교학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오민 경북대 교수(사진)는 최근 <문화·사학·철학> 제19호에 기고한 논문 ‘선전과 구호의 불교학을 비판한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오민 교수의 논문은 지난 <불교평론> 10주년 기념 학술포럼에서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진화론과 뇌과학으로 조명한 불교’에서 비롯됐다.

김성철 교수는 발표에서 “불법 후 500여 년이 지나 난삽한 아비달마 교학이 발달했다. 단순명료했던 초기 불교였는데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변해졌다. 이를 단칼에 쳐버리는 것이 반야중관학의 공사상이다... 반야중관학에서는 후대에 덧붙여진 아비달마 교학의 군더더기를 털어 내기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권오민 교수는 “한국 불교학계가 특정 종학을 지향하는 집단이 아니

라 객관적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집단이 라면 불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입선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다른 교학을 입선여기고 아주 더럽게 생각해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풍토에서 불교는 악의적인 구호와 선전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각자가 추구하는 종파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대승불교를 설명하면서 아비달마 불교가 초기불교의 근본정신을 왜곡해 출현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권오민 교수는 “혹자들은 ‘아비달마 불교의 출가자들은 부패 타락했고, 폐쇄된 사원에서 공리공론의 변칙한 회론에 몰두했다’고 비판한다면, 이런 중심이었던 아비달마 불교의 위배사나 수행법이 현재 재가자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승불교가 (아비달마 불교 출가승단에 엄중을 가졌던) 재가 보살교단에 의해 시작됐다는 견해는 히라카와 아카라(阿部 弘)의 가설에서 비롯됐다. 이 가설은 현재 P. 헤리스 등 다수의 비판자로부터 “대승불교의 기원은 재가자가 아닌 전통 부파불

교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됐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비판자인 사사키 시즈카도 “대승불교 역시 부파불교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출가자의 종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모다 마사히로 또한 “처음에는 대승·소승 구분이 없었다. 전통 부파교단에서는 발생 발전한 지속적인 경전 제작을 통해 대승불교가 성립됐다”며 “대승불교가 부파불교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시모다는 “대승경전은 이전의 경전을 수용해 해석하고 새롭게 읽는 과정을 통해 종류와 분량이 확대됐을 뿐 ‘역사적 붓다’의 권위를 빌려 날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오민 교수는 “(이와 같은 세계 불교학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학계는 대승불교를 기존 부파불교와 무관한 보살교단에서 비롯됐다는 히라카와의 가설을 삼척처럼 여긴다. 대승경전도 기존(부파) 경전과 무관한 개인 견해나 작품이라는 근대 불교학 초기시대에 형성된 미확인 명제를 정설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초기불교로 돌아가자’는 구호도 일본 불교학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민 교수는 “태생학적 연기설로 일컬어지는 초기경전의 12연기를 부정하고 상의상관 연기설을 불타의 근본정신으로 파악해 일본 실대승(實大乘)의 근본임을 주장한 것

이 일본의 국가주의 불교”라며 “일본에서 국가주의 불교학자로 평가 받는 와츠미 데츠로를 비롯해 우이 하루키 등의 후학들로부터 ‘초기불교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유래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 불교학계의 트렌드인 ‘쉬운 불교’를 비롯해 ‘초기불교가 쉽다, 단순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입침을 놓았다.

권오민 교수는 “(초기교설인) 아함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무상’ 등이 아함의 취의이지만 아함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의 불교학은 대승교의 소용돌이 ‘이타’로 인식해 불교학을 대중적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어떤 한 종교의 체계가 특히 불교처럼 세계종교에 대한 통찰을 통해 구원(해탈=열반)을 추구하는 고등 종교가 ‘법구경’ <숫타니파타>와 같은 잠언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권오민 교수는 “종학이든 교학이든 구호와 선전은 ‘학(學)’이 아니다. 구호는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감정에 호소하려면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방편을 구하라”면서 “학은 의심과 탐구에서 비롯되며 목적은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부파불교-대승불교 등을 잇는 교학 흐름에서 일미성(一味性)을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하나’에는 항상 ‘절대’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전국 폐사지 일제 조사 나서

## 조계종, 문화재청과 손잡고 전국 3000여 폐사지 학술조사 실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전국 폐사지의 일제 조사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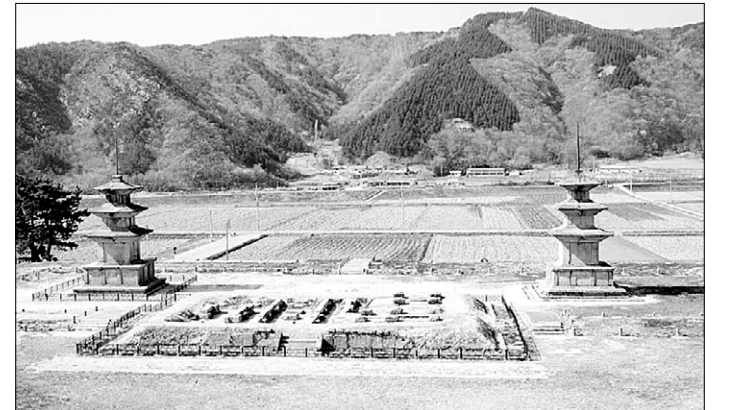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월 11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와 전국 3000여 폐사지에 대한 현황 학술조사를 중기계획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폐사지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처음이다.

조사는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보호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서울·인천·경기지역 폐사지를 대상으로 보존상태 조사, 실측과 현황도면 작성, 분포유물 조사 등 현황 학술조사를 시행하고 사지 보존·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주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정비와 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지(寺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35건,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같은사지 전경(위)과 용인 불당굴 사지.

문화재자료 69건으로 총 104건이다.

조동섭 기자

## 한형조 교수 특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헌)은 2월 1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대원불교사상강좌 2월 특강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금 왜 동양사상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 교수는 특강에서 ‘목적 없는 삶’에 대한 사상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 올너 콜렉션 디지털의 옷을 입다

## 금강대, 한국연구재단 지원 받아 7월 회향

금강대가 2006년부터 파키스탄 편자브대학,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공동 진행해 온 불교학 프로젝트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올너연구사업단(단장 최기표)은 2월 3일 국제회의실에서 인도학 관련 필사본인 올너(Woolner) 콜렉션 디지털 구축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너 콜렉션은 인도학자로 편자브대학 도서관장을 지냈던 올너 박사(1878-1936)가 수집한 7895점의 필사본이다. 14-19세기에 걸친 필사본에는 인도사상을 비롯해 역사·문학·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기술돼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관계 탓

에 올너 콜렉션은 학술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못했다. 소장처인 편자브대학과 세계적인 사본 연구기관인 비엔나 대학, 금강대가 올너 콜렉션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세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금강대에서는 최기표 금강대 올너연구사업단장을 비롯해 심재관, 박영길, 백도수 박사 등 신진학자 중심의 연구인력이 투입돼 3년간 사본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꼼꼼히 연구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비엔나대학 히말 트리카(Himal Trika) 박사과 크리스티안 페슬러(Christian Fests)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금강대 등이 진행한 프로젝트 결

과 7895점의 사본은 각각 고유의 색인이 달렸다. 색인에는 정확한 분류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문자의 종류, 종이질, 사본 상태 등이 기록돼 세계적으로도 원하는 사본은 물론 관련 사본들까지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최기표 단장은 “최첨단 검색시스템을 갖춰 향후 사본 DB구축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올너 콜렉션 프로젝트는 한국 학계의 원전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의 올너 콜렉션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4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금강대는 7월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결과물들을 프로젝트 홈페이지(www.woolnerproject.org)에 공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 돈황사본서 ‘대승기신론소’ 발견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 세미나서 공개 예정

한국불교를 흥토했던 원호 스님(617-688)의 사상이 중국·일본불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돈황사본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학 연구원인 평위엔(定源) 스님은 2월 23일 서울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고대 불교 사본 연구의 현황’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 돈황사본 발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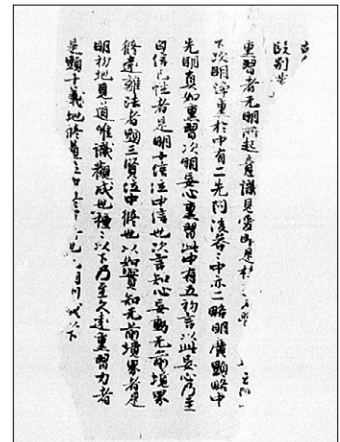
현재 <한국불교전서> <신수대장경> 등에 기록된 <대승기신론소>는 원호 스님 입적 후 1000여 년이 지난 일본 겐로쿠 9년(1696) 간행된 판본이 저본이다.

김천학 소장은 “평위엔 스님이 돈황사본에서 <대승기신론소>를 발

견해 다른 계통의 <대승기신론소> 사본이 확보됐다”며 “이번 돈황사본 발견은 일본을 제외하면 인용사례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대승기신론소>의 동아시아 지역 유통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나미 히로노부 박사가 발견한 신라 의적 스님의 <무량수경설화>도 최초 공개된다.

조동섭 기자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원호의 <대승기신론소>.

# 2010년도 제 3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 불교학과 (2월개강)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상,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과목
교수진	무진경 대중사, 최중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영수교수, 김희규교수, 황인성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모주성님, 박중교수정병조교수, 차차석교수, 김성현교수, 주영철교수, 정영성님, 보광성님, 종석성님, 보각성님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60명)
-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60명) ▶ 통산반 (60명)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 입학금 250,000원

개강일시

- ▶ 불교학과 2010년 2월 접수중

본회사사처 TEL : 732-1206 FAX : 732-1207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 www.dongsanbud.net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팸플릿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불교관련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산반 30명)	중국전노제, 초법심자경문, 한문해서 금강경(1), (2) 등	임재우교수	3월 4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일본사문해사(한국, 중국, 유럽) 제다학(1), 한국의 현대	변영달·이훈실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불, 단청, 여래상, 보살상, 사형상 등	법인성님	3월 11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배부, 여름, 가을, 겨울	정신성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2시

### 불교대학원 (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산 각 30명)	유식 30송 (2)	모주성님	3월 8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교리와 사상	김형준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의 수증론(1)	최봉수교수	3월 11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통다송, 다신전	김진숙·해성님	3월 16일(화) 오후4시30분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성님, 문중순법사	3월 6일(매주-토) 오후2시
법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법패 실기	인각성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3시

▶ 동산 정오아카데미가 3월부터 시작합니다.

- 직장인을 위한 경영, 경제 마케팅, 테크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
- 2010년 3월 새롭게 문을 연 '동산 정오아카데미'는 만·노·기 어려운 최고의 교수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도산속의 교육장입니다.
- 동산불교대학의 색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오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와 강사들이 수강생과 함께 소통 하며, 깊이 있고 재미있는 옛이시 강의로 수업을 합니다.
- 점심시간을 활용한 정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모든 직장인과 일반인들에게 쉽고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교육 타임을 제공합니다.

### 동산 정오 아카데미 (3개월과정)

제 목	내 용	교 수	교육일시 및 개강
테크특강	• 증권테크(3월)	• 김영호교수	• 매주 수요일 11시 40~12시 55분(50분강좌)
	• 금융테크(4월)	• 송승교수	• 2010년 3월 10일(수) 개강
	• 부동산테크(5월)	• 이승호교수	• (3개월과정 15만원)

### 동산 불교 교리강좌 (3개월과정)

제 목	내 용	지 도	교육일시 및 개강
불교교리강좌 제 4 2 기 (불반)	• 불교의 정의, 불교의 분류, 삼보살	문중순법사 정병조법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삼과설, 사체설, 연법, 수도론		• 2010년 3월 10일(수) 개강
	• 대승보살, 육바라밀, 불문화 등		• (3개월 과정 6만원)

불교교육 전문기관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 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